

## C-4. Ovate Pontic 을 이용한 전치부의 심미 수복

배수민\*, 이주연, 김성조, 칙점일

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

### 연구배경

Ovate pontic은 emergence profile을 상실된 치아부위에 더 자연스럽게 재현하는 정교한 고정성 보철물이다. 이것은 외상, 치아우식, 형태적 기형으로 인해 발치가 예상되나 치조골의 buccal plate와 인접조직이 intact 한 경우 혹은 환자의 경제적 상황,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 상황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에 전치부의 심미 수복에 사용될 수 있다. 이러한 Ovate pontic의 장점으로는 치은구내에서 보철물 경부까지 emergence profile 을 조정하여 proximal contact 을 개선시킬 수 있어 심미에 효과적이며, 음식함입을 막아 oral hygiene 에 유리하며 형태적으로 견고하며 발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. 하지만, pontic 하방의 형태를 형성하기 위해 부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, oral hygiene 이 안 될 경우 pontic 하방에 염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, 치조 제에 결손이 있을 경우 부가적인 치조제 증대술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. 본 증례에서는 치주질환으로 pathologic migration이 일어나 비 심미적으로 보이는 상악 좌측 중절치를 발치한 후, ovate pontic으로 자연스럽게 형성하고, provisional restoration의 점진적인 조정으로 papilla의 형태를 조정하여 심미적으로 수복한 경우를 발표하고자한다.

### 연구 방법 및 절차

본 증례에서는 중등도 치주염에 이환되어 extrusion되어 있는 상악 좌측 중절치를 발치하고 ovate pontic을 이용하여 전치부의 심미수복을 계획하였다. 발치 전에 미리 지대치를 삭제하고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채득하여 발치 및 지혈 시간 동안 provisional restoration 을 제작하였다. 치조골 및 인접 치주조직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치를 시행한 후 발치 당일 provisional restoration을 장착하였다. 그리고 2주에 한번 환자를 내원시켜 proximal 쪽으로 overcontouring 시키면서 적절한 gingival contour를 형성할 때까지 6주간 조정하였다. 그 후 금속의 색이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zirconia를 이용하여 최종 보철 물을 제작하고 치은의 상태를 확인하였다. 환자에게 적절한 구강위생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치료를 마무리 하였다.

### 결과

수복 후 상악좌측 중절치 하방 치은의 자연스러운 gingival contour를 얻을 수 있었고 환자도 결과에 만족하였다. 최종보철물 장착 후 초기에 치은에 염증이 경미하게 존재하였으나

구강위생교육 후 염증은 사라졌다.

### 결론

이번 증례에서는 발치 후 즉시 ovate pontic을 구강 내에 장착하여 점진적으로 gingiva의 형태를 조정함으로써 보철물 경부까지 emergence profile 및 proximal contact 을 개선시킬 수 있어 심미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. 또한 최종 보철물 장착 후 follow up시의 방사선 사진에서 해당 부위의 발치와가 치유되면서 치주염으로 인해 감소되었던 alveolar bone의 높이가 인접치의 alveolar bone crest level 까지 회복되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.